우리의 행위가 바를 때 가피(기적)는 있다.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그 근거는 신앙생활의 모체인 경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각 종단은 지도 원리에 따라 수행의 지침서(교과서)인 소의경전(所依經典)이 있다. 이는 **불교의 경전으로 신행을 비롯하여 교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근본경전이 소의경전이다.**

한국 불교종단 대부분이 많은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 · 법화경 · 화엄경등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그 지도 원리에 따라 경전의 말씀대로 바르게 수지하고 있는지 살피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절 집에서 가르침과 동떨어진 잡상인 행위를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 알리고 또 알릴 수밖에 없다.

그 행위는 부적, 삼재풀이기도, 산신, 용왕, 사주, 관상, 방생, 성지순례, 기왓장장사, 다도, 수능합격기도, 술, 담배, 신년기도 위패(만년. 평생. 영구), 스님생일(어느 큰스님 법문에 출가자가 생일 찾는 것은 정신나간일), 우담바라, 각종바위, 바위에 동전붙이는 행위, 남성 심벌 만지는 것, 경을 머리에 이고 도는 행위, 돈 액수에 따른(큰 등. 작은 등), 등종류(108. 사업성취. 재수. 합격. 승진 등등), 그림(달마도→어록의 말씀을 펼쳐야 함), 극락발원 티켓, 죽비 치는 행위, 솥을 흔드는 행위, 절 짓는 일(동국대, 승가 대등에 학인스님 교육 불사와 불우이웃돕기 해야 함), 각종기도(운맞이. 운수대통. 재수대통. 해돋이 등), 진산식(걸식하는 이가 진산식 이라니...), 관장, 원장, 대표이사(중 벼슬이 닭 벼슬보다 못하다고 했거늘), 합창단, 산사음악회, 천도재(소천도. 대천도. 특별천도재 등), 생전예수재 등 재비와 고액이드는 성지순례 비용으로 불우이웃에 기부하고 선업을 닦기 위해 장애인, 요양원 아니면 고향부모 찾아 효행을 하는 것이 선행을 닦는 것 임.

이렇게 불조사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하루 종일 온 도량을 더럽히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삼보천룡과 팔부신장이 왕림 하겠는가?

그러면서 가피. 영험이라니

(금강경)

※ 수보리야 여래는 진리의 말(참된 말)을 하는 이며, 진실(실다운 말)을 말하는 이며, 진여(한결같은 말)의 말을 하는 이며, 거짓말(속이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이며, 다른 말(다르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이니라.

※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바르게 받아 지니고(실천) 읽고 외우며 타인을 위해 널리 바르게 알린다면 여래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으며 끝이 없이 가히 생각해볼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거짓 없이 바르게(정법) 받아 지니고(실천하고) 외움으로 만일 남에게 업신여김(무시받고 천대받음)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한세상(惡道: 지옥 · 아귀 · 축생)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에 바른법(정법)을 홍포함에 남에게 무시되고 업신여김(왕따)을 받으면 곧 삼세(과거 · 현재 · 미래)의 죄업이 다 소멸되어 그는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화엄경)

물질적인 공양의 공덕을 바르게 일러주는 **법공양(예: 삼재는 띠 삼재가 아닌 자연재해인 대삼재→ 화재, 수재, 풍재. 소삼재→ 도병재, 질병재, 기근재)**의 공덕에 견준다면 물질적 공양은 바른 법공양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바른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출현케 하는 일이고 만일 우리가 법공양을 바르게 행하면 부처님이 공양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진정한 공양이 되는 것이다.(금강경 제14: 이상적멸분→ 복과 지혜는 견줄 수 없다 참조)

(법화경)

※ 여래가 입멸 후 사법(삼재 · 부적 등 비불교적인것)을 멀리 하고 바르게 정법을 수지하여 타인에게 교설하는 사람은 여래가 옷으로 이 사람을 덮어준다.

또 타방에 계시는 현재의 제불께서 보살펴 주심은 물론 여래께서 항상 그와 함께 기거하시며 그 사람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느니라.

※ 너희들이 다만 불법을 바르게 실천하며 알려주는 사람을 옹호하기만 하여도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 만약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내어 바른 법을 전하는 수행자에게 칼과 몽둥이 기와나 말, 돌로써 그를 음해하거나, 가해하려 한다면 즉시 변화신을 보내어 그를 보호할 것이다.

※ 만일 바른 법을 믿지 않는 중생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마땅히 여래의 바른 깊은 묘법(신통묘력)을 보여줄 것이니라.

(대열반경)

※ 만일 어떤 수행자가 이 경전을 읽고 쓰며, 외운 것을 바르게 해설하면서 타인에게 말하고 그 뜻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나의 제자로서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닌 이며, 내가 보는 바이며, 내가 생각하는 바이다.

※ 무섭고도 겁나는 삿된 법(사주 삼재 부적 등)이 성행하는 말세(2500년 후)에 가서, 바른 법이 다 사라지려할 때 경전을 펴서 지키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그 공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량 하느니라.

(대승보살장 정법경)

※ 부처님 입멸 후 바른 정법이 없어지려 할 때는 마음을 굳게 먹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선지식(바른 수행자)을 가까이 하고 생사에서 벗어날 것을 원해서 정각을 구하는 견고한 의지를 지니고 바르고 큰 정진력을 일으켜 마군의 무리를 깨야 하느니라.

(아함경)

※ 너희들은 나의 입멸을 보고 바른 법이 영원히 단전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고 바른 정법을 설해 왔으니 너희들은 내가 입멸한 뒤에 계율과 바른 정법을 스승삼고 의지하여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 같이 할지니라(열반경 참조)

(불반니원경)

※ 경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모두 공개할 것이며, 경속에 의심되는 바가 없도록 하라. 내가 열반한 후에 바른 수행자는 이 법을 지니게 될 것이니라.

※ 이외**(대방등대집경. 발보리심경론. 마역경. 열반경. 소성다라니경.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 현우경. 대장엄경. 유교경. 신불공덕경. 관무량수경 등 참조)**에 경전에서 보듯이 부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바르게 실천 수행할 것을 강조하셨고 우리에게 유훈으로 남겨놓고 잠시 사바세계를 떠나셨다.

사례 (희귀병)

2010년 서울을 떠나 여기 거제도에 안착했으나 한 달에 한번 꼴로 서울 나들이를 하고 있다. 그날도 여러 가지 일을 볼 겸해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차를 한잔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도분이 불쑥 "스님! 지금 00보살이 오고 있으니 꼭 좀 친견해 달라"는 것이다. 스케줄에 없던 얘기다. 그러나 이미 오고 있다는데 어쩔 방법이 없었다. 그러고 조금 있다 보살이 들어왔다. 그 보살은 태백산에서 인연이 되었던 이다. "스님"하며 인사를 하고는 스님 가시기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뵙기를 청하는 것이다.

그 가게는 가족전체가 운영하는 가게다.

그리고 바로 가게로 가니 가족이 반가이 맞이한다. 다시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스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 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약 5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출가한 딸이 아들(7세)을 데리고 와서 인사와 동시에 그 아이를 내 무릎위에 앉히는 것이다. 사실 난 아이들을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그간 안부를 물으며 얘기를 하는데 내 무릎위에 있는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얼굴을 2초 간격으로 한쪽 방향으로 빠르게 90도로 계속 돌리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보니 틱은 아니었다.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하니까 아이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6개월 되었다"고.... 서울 대형 병원에서 가료와 치료를 병행했고 또 유명한 한의원에서 침술과 한방치료를 두 달 받았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냐고 하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연락해야지 하며 좀 꾸짖었다.

그리곤 모레새벽 04에 전 가족이 연등사 법당에 오라했다.

정해준 날 새벽에 전 가족이 다 왔다.

그때도 안거 중이었기에 신도님과 같이 기도를 해주었고 지금 그 아이는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

※ 이렇게 각 경에서 보듯이 부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삿된 행위(기복 · 잡귀)를 버리고 바르게 실천 수행할 것을 경마다 강조 또 강조하시었고 궁극에는 **열반경에서 유훈(법등명,자등명)으로 남겨놓고 사바세계를 떠나셨다.**

또 부처님말씀(경전)은 2600여년이 지났어도 경전에 글자한자 변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변해도 너무 변했다.

드러내놓고 하는 말과 행위는 아예 불교가 아니다.

여기 오는 이들 대부분이 전국을 몇 바퀴 돌고 오는 환우 들이다.

그들의 한결같은 소리는 "스님! 부적, 삼재, 방생, 성지순례, 합격기도, 재수기도 등등 안하는 곳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부끄럽다.

귀감이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꺼리가 없다. 있다면 오로지 경전 뿐 이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 권력형 정치꾼에게 "형님" 하며 0억 갖다 주지 않나, 사찰인근 호텔에서 술, 담배에 화투장을 들고 밤을 지새지 않나, 0가연수원에서 음주, 가무를 하지 않나, 경내에서 크다는 00들이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새벽3시까지 도박을 하다 법당에 들어가질 않나, 수 십 안거를 충만하고 00장까지 한 이가 호텔에서 수 백 만원씩 받고 전라의 몸을 더듬지 않나, 중 벼슬이 닭 벼슬보다 못하다고 했거늘 한 · 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이때 원장, 관장, 대표이사 등 하다 물의를 일으켜 하마평에 오르지 않나, 이번 일로 우리들 두 얼굴의 민낯을 확실히 보게 해주어 감사하고 감사한다. **승가여 벼슬은 능력 있고 수완 좋은 저들에게 맡기고 수행자는 세상을 향해 보현행원으로써 걸어가자.**

그리고 제발 참회하자. 말로써 하는 참회 말고 진 참회를 저들이 용서해 줄때까지...

이번 법공양은 충주 어느 법보단체의 공덕으로 부처님 전에 회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처 055-633-6555 (010-3143-5302)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3143-5302 (윤 ○○)
- 010-5699-3173 (박 ○○)
- 010-8291-9423 (변 ○○)
- 010-9707-4808 (박 ○○)
- 011-9143-0098 (김 ○○)
- 010-4807-6932 (박 ○○)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